호스피스는 나의 친정집이다

박계화 (데레사)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한 지 어느새 20년이 눈앞에 다가왔다. 남편의 폐암수술, 그리고 마침내 회복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느낀 삶의 의미와 주님의 은혜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 시작했지만, 이제는 내 삶에 가장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봉사자로서의 처음 몇 달은 환자와 가족을 보면서 "품위 있는 죽음은 없다."고 생각했다. 통증에 찌든 얼굴, 피로에 지친 보호자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별, 슬픔, 이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환자와의 소통도 어려웠다. 섣부른 이해와 관심이 행여나 상처가 될까 한마디 한마디가 고민의 연속이었다. 나이 어린 환자들에게는 더욱 조심스럽고, 알 수 없는 미안함으로 괴로웠다.

고민과 어려움이 많은 날들이었지만, 항상 함께 나누던 동료 호스피스봉사자가 있어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함께 교육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던 그 친구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봉사를 그만 두게 되었다. 친구와 나는 같은 봉사자에서, 봉사자와 환자로 다시 만났다. 환자인 친구의 머리를 감기며, 부은 다리를 마사지하며 친구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다. 매일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참 많이 울었다. 보호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친구는 아직 암투병 중에 있지만, 잘 견디고 있다.

5년 전, 미국에 사는 오빠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갔다. 폐암말기였다. 내가 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다. 미국에 있는 40일 동안 오빠 옆에서 호스피스 병동의 보호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으며, 씻기고, 식사 드리고, 발 마사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오랜만에 오빠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오빠는 가정호스피스 대상자였다. 24시간 병원과 상담할 수 있었고 병원에 가면 언제나 담당간호사가 마중 나와 있었다. 외래에 가면 환자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며 참으로 그 시설과 서비스에 놀라고 감동을 받았다.

오빠는 내가 귀국한 지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떠나기 전에 느꼈던 형제간의 깊은 우애만큼이나,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이 사무친다. 시간이 흘러도 희석되지 않는 이 그리움은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할 아픔이 된다. 사별가족의 마음은 이보다 더 할 것이다.

많은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서 성숙해졌고, 진정한 호스피스를 배워 간다. 이제 호스피스병동은 친정처럼 편한 곳이 되었다. 환자들의 마음도 이해하는 범위가 넓어졌다. 그분들이 품위 있게 떠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지친 보호자들을 도와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병동에 있는 환자들과 모든 환자 가족들, 그리고 호스피스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이제 "쉬거라" 하는 날까지 나의 호스피스는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구나" 해 주시기를 바라며.

회원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평생회원

박명희

신입회원

김애리, 강귀엽, Sr.최귀령, Sr.윤영노, 오유순, 송옥순, 이경심, 이숙경, 이윤영, 전옥경, 한순옥, 장민선, 한영섭, 곽지현, 박춘효, 심옥경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연수

2015년 세미나 찬조금 : 먼디파마(유), 유양숙, 이미숙